

E-E1-11

등근마 種根別 差異가 生育과 收量에 미치는 영향

김인재^{1*}, 남상영¹, 김민자¹, 노창우¹, 김홍식²

¹충북농업기술원, ²충북대학교 식물자원학과

등근마 종근별 생산성을 구명하여 종근비를 절감하고자 등근마 절편종근 조직배양종근, 영여자 등 3처리로 수행하였다. 등근마 종근별 출현율은 절편종근의 87.1%에 비해 조직배양종근에서 4.2% 높았으나 영여자는 2% 낮았다. 출현소요일수는 절편종근 46일에 비해 조직배양종근은 10일, 영여자는 2일이 빨랐다. 지상부생육중 만장은 절편종근미 247cm로 조직배양종근과 영여자에 비해 각각 10cm, 28cm가 길었으며, 줄기의 굵기도 절편종근>조직배양종근>영여자의 순으로 굵었다. 줄기수는 영여자가 가장 많은 2.7개/주 이었고, 영여자수는 단위면적당 절편종근과 조직배양종근은 11.1~12.2개이었으나, 영여자는 1.3개로 현저히 적었다. m²당 괴근수는 절편종근이 19개로 가장 많았으며 조직배양종근과 영여자는 10개 정도이었다. 괴근중은 절편종근이 3,403g 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편종근에 비해 조직배양종근은 76.2%, 영여자는 39.8%의 순으로 많았다.

*김인재: Tel. 043-220-8442, e-mail: kinjae@cbares.net

E-E1-12

재배방법에 따른 꾸지뽕나무의 생육특성

유동현*, 박춘봉, 김종엽, 유영석, 노승관, 류 정

전라북도농업기술원 약초연구소

꾸지뽕나무(*Cudrania tricuspidata*)는 생약명이 자목(柘木)으로 분류학적으로는 쌍떡잎식물 썩기풀목, 뽕나무과, 낙엽활엽수, 소교목 또는 관목이며, 한국(황해이남, 800m 이하)·일본·중국에 분포하고 있다. 꾸지뽕나무는 플라보노이드계인 모린, 루틴, 모르핀을 함유하여 항암 효과가 탁월하고 아스파라긴산 글루타민산, 리보플라빈 등과 비타민 B₁, B₂, C 등을 함유하고 있다. 그러나 자생 꾸지뽕나무 균락지를 발견하기 매우 어렵고 남획되고 있는 실정이며 재배에 관한 기술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자생지 복원과 함께 소득작물로서의 재배기술 체계를 확립하여 안정생산기반을 마련하고자 실시하였으며 꾸지뽕나무 6년~7년생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주지수에 따른 수체 생육은 3분으로 유인했을 때 신초의 생장 잎의 크기, 잎의 확보가 용이하였고, 과실의 특성에 있어서도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3분으로 수형을 유지할 때 크기나 색택이 양호하였으며 재식거리가 넓을수록 과실의 크기, 당도, 색도가 양호하였다.

*주저자 연락처 : Tel : 063-433-7452 유동현 E-mail : ydh0603@hanmail.net